

고대 중국어 피동표현과 공손의미의 상관관계 고찰

- 'A見V' 구문을 중심으로

朴鄉蘭*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공손의미 'A見V'구문의 생성 과정
3. 공손의미 'A見V'구문의 문맥적 특성
4. 고대 중국어 피동표현과 공손의미의 상관관계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見’은 고대 중국어에서 상용되는 피동표지의 하나로 ‘보다’, ‘만나다’의 의미가 ‘입다’, ‘당하다’의 의미로 변한 것이다. 이는 원래 ‘見’의 주어가 의도를 가진 행위자라기보다는 일종의 경험자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아래 예문(1~2)를 보면 문장의 주어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입음을 당하는 수동자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¹⁾ 이때 피동사건을 일으키는 행위자는 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행위자를 드러내고자 할 때는 예문(3~4)처럼 동사 뒤에 ‘于’개사구조나 ‘爲A所V’구문을 사용한다.

* 慶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1) 이는 고대 중국어의 다른 시각동사 ‘看’, ‘視’와는 구별되는 점으로 ‘見’의 다양한 용법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 (1) 故國离寇敵則傷, 民見凶飢則亡。(墨子·七患)
나라가 왜적을 만나면 상하게 되고 백성은 기근을 만나면 죽게 된다.
- (2) 盆成括見殺。(孟子·盡心下)
盆成括이 살해당했다.
- (3) 吾長見笑于大方之家。(莊子·秋水)
저는 오랫동안 식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 (4) 孤以常才, 謬爲尊先君所見稱。(晉書·禿發烏孤附禿發檀載記)
저는 평범한 재주로 외람되어 선군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한 및 위진 남북조시기를 전후로 ‘見’앞의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수동자가 아니라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 혹은 당사자로 보이는 경우가 생겨난다. 아래 예문(5)를 보면 ‘見’앞의 아버지(慈父)는 버림(돌아가심)을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버리는 당사자이고, 예문(6)에서 재상(宰臣)은 배척을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배척하는 주체, 즉 행위자이다. 이런 경우 ‘見’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 (5) 生孩六月, 慈父見背。(李密·陳情表)
나를 낳은 지 6개월 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 (6) 聖主不加誅, 宰臣不見斥。(韓愈·進學解)
군주는 주살하지 않으시고 재상은 내치지 않으셨다.
- (7) 先君以禮見待, 熹得以禮進退。(晉書·李熹傳)
선군께서 예로써 대우하니 제가 예로써 나아가고 물러날 수 있습니다.
- (8) 自去故鄉, 荏苒六年, 惟姑与姊, 乃見背弃。(陸云·歲暮賦序)
고향을 떠나 6년이 흘러, 고모와 이모도 모두 돌아가셨다.

이에 대해 呂叔湘(1943)은 ‘見’을 문맥상 피동행위를 받는 수동자로 보고 주로 생략된 일인칭 대명사인 ‘나’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는 공영달이 《詩經·鄭風·褰裳》序에서 ‘思見正也’을 ‘見者, 自彼加己之詞’로 주를 단 것을 미루어 ‘見’이 곧 ‘己(자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런 구조는 고대 중국어의 ‘R見V于A’와 ‘R爲A所見V’구조가 합쳐져서 예문(4)와 같이 ‘R爲A所見V’구조가 되고, 다시 ‘爲……所’가 생략되면서 ‘A見V’구조가 남게 된 것으로 이때 ‘見’

은 바로 앞에 출현하는 수동자(R)를 대신 가리킨다는 것이다.²⁾ 때문에 AV(R)과 같이 피동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재상이 나를 내치다’와 같이 능동문으로 해석 된다는 것이다.

呂叔湘(1943)의 견해는 이후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 張錦笙(1994), 朱家平(1998), 陸美善(1998), 楊伯峻, 何樂士(2001)등 많은 학자들이 ‘見’이 모두 일인칭 대명사를 가리킨다는 데 동의하였다. 다만 朱家平(1998)은 여러 예문의 수집을 통해 ‘見’이 일인칭뿐만 아니라 이삼인칭 대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였다. 陸美善(1998)은 ‘A見V’구문에서 ‘見’을 지시 대명사성 부사(指代性副詞)라고 명명하고 다소 함축적이고 완곡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楊伯峻, 何樂士(1992)역시 ‘見’이 ‘나’ 혹은 ‘자기’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자주 쓰이면서 일종의 공손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로 변화했다고 보았다. 이들은 품사의 명칭에 있어서는 대명사, 부사, 접두사 등으로 다소 상이하지만 ‘見’을 피동행위를 받는 수동자로 주로 생략된 일인칭 대명사로 본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반면 姚振武(1988)는 행위자가 앞에 출현하는 ‘見’구문에서 ‘見’을 ‘보이다(顯現義)’의 의미를 갖는 동사라고 보았다. 그는 晉代 范宁의 《漢書集解》에서 ‘見’의 독음이 ‘賢遍反(xian)’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피동표지 ‘見’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白兆麟(1998)은 姚振武(1988)의 견해에서 더 나아가 ‘見’은 ‘당하다(遭受)’ 의미와 ‘보이다(顯示)’ 의미를 둘 다 갖는 동사로, ‘당하다(遭受)’의 동사는 피동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었고, ‘보이다(顯示)’의 동사는 공손을 표현하는 부사가 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彭小琴·愈理明(2006)은 이런 구조에서 ‘見’자체는 공손의미가 없고 단지 동작의 행위 지향이 수동자를 의미하는 부사라고 보았다. 이밖에 李潤(1995)은 ‘見’을 ‘作’, ‘爲’와 같이 동사 앞에 출현하는 泛義동사로 보았다.

위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A見V’구조에 출현하는 ‘見’은 행위를 당하는 수동

2) 呂叔湘(1943)에서 R=Recipient(수동자), A= Actor(행위자), V=Verb(동사)로 표기하였다. 본고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자인 생략된 대명사로 보는 견해와 ‘보이다’ 혹은 공손과 같은 수사적 표현을 나타내는 동사 혹은 부사로 보는 견해로 크게 나뉜다. 먼저 대명사로 보는 견해를 살펴보면 ‘보다’, ‘만나다’ 혹은 피동의미를 갖는 동사와 일인칭 대명사 간의 변환 관계를 설정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문법화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사에서 대명사로의 변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見’이 일인칭뿐만 아니라 이삼인칭의 생략된 대명사라고 본다면 이는 ‘見’자체가 고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에 근거한 수문석의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후기로 가면 ‘A見V’ 뒤에 대명사 목적어가 다시 출현하는 경우가 생겨나므로 ‘見’자체를 대명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 ‘見’을 ‘보이다’ 혹은 공손을 나타내는 표지로 보는 견해는 어떠한가? 결론적으로 ‘見’이 각각의 구조에서 피동과 공손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는 근거는 없다. ‘見’ 뒤에 출현하는 동사는 두 구조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단지 문장 앞에 행위자가 오느냐 수동자가 오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어휘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는 단지 변환 뒤의 해석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見’이 피동의미에서 ‘보이다’, 혹은 공손의미로 직접적인 의미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본고는 행위자 주어가 나타나는 ‘A見V’구문의 ‘見’을 생략된 1인칭 대명사로 보는 견해에 반대하고 또 공손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새로 생겨난 어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러 견해들이 ‘A見V’구문이 일종의 공손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보는데 왜 이들 구조가 공손의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느냐는 것이다. 이는 ‘見’자체의 어휘의미가 변화된 것이라기보다는 구문의미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見’은 여전히 피동표지로 쓰이지만 일정한 화용 문맥적 조건에서 공손의미를 드러낸다고 보고, ‘見’이 어떤 문맥적 환경에서 공손의미를 나타내는 지 그 생성 과정과 문맥적 특성 더 나아가 고대 중국어의 여러 피동표현과 공손의미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공손의미 ‘A見V’ 구문의 생성 과정

문법 구조의 출현과 소멸은 동시기 문법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문법 구조의 출현은 다른 문법 구조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 중국어는 고대 중국어에서 중고 중국어시기를 거치면서 유형학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상고 중국어의 피동법 역시 중고 중국어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피동형식이 새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상황을 겪었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하는 행위자가 출현하는 ‘A見V’구문은 한대 이후부터 위진 남북조시기에 성행하다가 당대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인다.³⁾ 때문에 고대 중국어에서 중고 중국어 시기 피동법의 변천 과정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A見V’구문의 공손의미의 생성은 이 과정에서 생겨난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인다.

원래 상고중국어 시기에는 주로 ‘于’, ‘爲’, ‘見’구문을 이용해 피동을 표현하였다. 唐玉明(1985,1987)에 따르면 ‘于’구문이 서주금문 시기에 가장 먼저 출현하였고, 춘추전국 시기에 ‘爲’구문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전국시기 이후로 ‘見’구문과 함께 더불어 흥성하기 시작했다. 동한 이후로는 ‘于’구문이 점차 사라지면서 행위자와 함께 출현하던 ‘見V于A’구문도 사라지게 되었다.⁴⁾ 대신 피동표지 ‘見’은 ‘爲A所V’구문에 삽입되어 행위자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爲A所V’구문은 ‘爲’가 문장의 주요 동사가 되고 ‘A所V’를 목적어로 취하는 일종의 판단문으로 볼 수 있다.⁵⁾ ‘爲’구문은 ‘爲AV’, ‘爲所V’, ‘爲A之V’와 같은 다른 변형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爲A所V’구문에서 수동자 R은 문장 앞에 나타나거나 암시된다. 이는 한국어 ‘~되다’구문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피동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수동자가 문장 앞에 출현하여 어떤 상태변화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피동표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만약 呂叔湘

3) 朱家平(1998)참고

4) ‘于’는 원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전문적으로 피동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동한시기 이후 중국어의 유형학적 변화로 동사 뒤에 오는 전치사구가 사라지면서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5) 龍國富(2014)참고

(1943)의 견해처럼 ‘見’이 삽입되면 ‘爲A所見V’구문이 된다. 이때 동사 앞의 ‘見’은 여전히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를 ‘당함’을 나타내는 피동표지가 된다.

- (9) 人能自調御，除非去邪，爲諸天世人諸佛世尊神通得道者所見敬。(出曜經·卷19)⁶⁾
 사람이 능히 스스로를 다루어 그릇되고 악한 것을 버리면 모든 하늘과 세상 부처님과神通한 도를 얻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바가 된다.
- (10) 金城郡，昔爲韓遂所見屠剝，死喪流亡。(三國志·魏志·蘇則傳)
 金城郡은 일찍이 韓遂에게 도륙당해 백성들이 죽고 흩어졌다.
- (11) 相前位高唐，志埽奸鄙，遂爲貴郡所見枉舉。(后漢書·酷吏陽球傳)
 고당에 거하면서 뜻을 간사함을 물리치는데 두어 마침내 貴郡에게 외람되이 천거되었다.
- (12) 壺年九歲，爲先母弟表所見孤背；十二，蒙亡母張所見覆育。(晉書·卞壺傳)
 저는 9살에 생모가 돌아가시고, 12살에 장씨에 의해 훈육되었다.

위의 예문을 보면 수동자는 앞에 출현하거나 암시되고 뒤에 행위자가 출현하여 수동자가 행위자에 의해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 피동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문(9~12)에서 ‘人’, ‘金城郡’, ‘壺’등은 모두 문장의 주어이자 상태변화를 겪는 수동자이고 ‘天世人諸佛世尊神通得道者’, ‘韓遂’, ‘貴郡’, ‘先母弟表’는 행위자가 된다. 때로는 위의 예문에 대응되는 ‘見’이 출현하지 않는 ‘爲A所V’구문도 존재한다.⁷⁾ 이때 ‘見’이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爲A所V’구문 자체가 이미 피동의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래와 같이 동사인 ‘爲’가 생략되면 ‘A所見V’구조가 하나의 명사성 성분이 되어 문장의 서술어가 된다. 이런 경우에도 의미상 ‘爲A所見V’구문과 차이가 없고 단지 서술성 구조가 지칭성 구조로 바뀌어 ‘~한 바이다’, ‘~한 바가 되다’와 같이 번역될 수 있다.

- (13) 整雅識情僞，尤明政術，恭謹廉慎，常惧盈滿，故歷居內外，所在見称。(北

6) 예문(9~16)은 朱慶之(2013)의 논문에서 인용하였다.

7) 朱慶之(2013)는 ‘見’의 유무는 사자격의 운율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史·令狐整傳)

令狐整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정략에 밝으며 겸손하고 청렴하여 항상 가득차는 것을 두려워하여 대대로 안팎으로 칭송을 받는 바이다.

(14) 博學通瞻，衆所見稱。(歐陽修年譜)

박학다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바이다.

(15) 臣亡父先臣賀與長孫渴侯、陸麗等表迎高宗，纂微寶命。麗以扶負聖躬，親所見識，蒙授撫軍大將軍、司徒公、平原王。(魏書·源懷傳)

신의 돌아가신 아버지 賀와 장손 渴侯、陸麗등이 高宗을 받들어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 陸麗는 高宗을 안고서 입궁하여 高宗에게 신임을 받아 撫軍大將軍、司徒公、平原王에 봉해졌다.

(16) 後數日，客夏見鏐，鏐曰：‘前所見教，誠如公言，已大散矣。’(唐國史補)

며칠 후에 객이 다시 鏐를 만났다. 鏐이 ‘저번에 가르침을 받은 바가 진실로 공의 말과 같았습니다. 이미 크게 흩어 졌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만약 ‘爲’와 ‘所’가 둘 다 생략되면 바로 본고에서 논의되는 행위자 주어와 출현하는 ‘A見V’구조가 된다. 아래 예문을 보면 ‘A見V’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로 ‘見V’가 여전히 명사구를 이루는 구성성분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17) 王仙客聞之，心氣俱喪，達旦不寐，恐舅氏之見棄也。(唐宋傳奇集·无双傳)

王仙客이 듣고는 기분이 상해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니 舅氏에게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 한 것이다.

(18) 乃是李巖因軍糧不濟，怕丞相見罪，故發書取回，却又妄奏天子，遮飾已過。(三國演義·第101回)

李巖은 군량이 부족하여 승상에게 죄를 얻을까 두려워 서신을 보내고 돌아와서는 도리어 다시 진나라 천자를 속이고 자기의 잘못을 덮었다.

(19) 云長大悟，乃再拜曰：“某之不明，非足下見教，几誤大事。”(三國演義·第73回)

운장이 크게 깨닫고 이에 절하며 말하길 ‘제가 명민하지 못하여 족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대사를 그르칠 뻔했습니다.’

(20) 但恐玉帝見罪，方才走出天門來也。(西游記·第5回)

하지만 옥황상제에게 죄를 받을까 두려워 방금 천문으로 쫓아냈습니다.

위의 예문을 보면 ‘見’은 여전히 피동표지로 쓰이며 동사와 함께 ‘見V’자체가 명사성 성분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문(17)을 보면 ‘之’가 중간에 삽입되어 명사성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呂叔湘(1943)처럼 ‘A見V’를 AVR로 변환해서 ‘見’을 대명사로 보거나 혹은 다른 의미를 가진 동사 혹은 부사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見V’구조의 어휘화가 진행되어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면서 뒤에 목적어가 다시 출현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는 현대 중국어에서 경어표현으로 쓰이는 ‘見愛’, ‘見賜’, ‘見訪’, ‘見告’, ‘見過’, ‘見惠’, ‘見教’, ‘見諒’, ‘見示’, ‘見笑’, ‘見贈’ 등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이들 구조에 출현하는 ‘見’은 대명사로 볼 수 없고, 또한 피동을 나타내는 표지로도 보기 어렵다.

- (21) 諸賢勿以武士見待朱將軍, 此公甚精名理, 又善屬文。(太平廣記·東陽夜怪象)
여러 현인들은 무사로써 주장군을 대하지 마시오. 장군은 명리에 밝고 글을 잘 씁니다.
- (22) 天下之人, 亦且見笑之, 是何所厚望于其有以感發天下之心哉! (宋蘇軾·論十九首)
천하 사람이 비웃으니 어디서 다시 천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 (23) 多亏娘子不弃, 見教小生。(初刻拍案惊奇·第16回)
다행히 어머니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소생을 가르치셨습니다.
- (24) 太師欲取天下, 何故以小過見責溫侯? (三國演義·第8回)
태사께서 천하를 취하려고 하면서 어찌 작은 잘못으로 溫侯를 꾸짖으십니까?

彭小琴·愈理明(2006)은 위와 같은 예문에서 ‘見’은 단지 동작 행위의 지향이 수동자임을 나타내는 부사라고 보고 있다. 즉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일종의 어기를 표현한다고 본다. 이를 문법화 혹은 어휘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見’은 이미 허화되는 과정에 있고 때문에 수동자 목적어가 뒤에 출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見V’구조가 행위자 주어 뒤에 자주 쓰임으로써 ‘~에게 ~된 바(것)’라는 지칭성 구조에서 주어가 특정 행위를 수동자에게 ‘~ 해주다’와 같은 서술성 구조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즉 ‘見V’구조 앞에 행위자가 출현하여 수동자에게 어떤 수여나 혜택을 주고받는 문맥 속에 자주 쓰이면서 수동자에 대한 설명으로 쓰이던 것이 행위자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서 ‘見V’구조가 동사로 바뀐 것이다. 때문에 ‘당하다’, ‘받다’의 의미가 행위자 주어를 취하면서 반대급부로 수여의미인 ‘주다’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姚振武(1988)가 ‘A見V’구조에서 ‘見’을 ‘보이다’, ‘드러내다’로 해석한 것은 행위자 주어에게서 모종의 행위가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見V’는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 쓰인 것으로 이때 ‘見’은 공손표지로 바뀌었다기 보다는 구문의미가 이미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A見V’구문에 나타나는 행위자나 수동자의 성격을 통해 공손표현이 나타나는 문맥적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공손의미 ‘A見V’ 구문의 문맥적 특성

먼저 ‘A見V’구조에서 행위자(A)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呂叔湘(1943)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見’을 일인칭 대명사로 여길 만큼 문맥에서 수동자는 화자인 자기 자신이 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목할 점은 ‘見V’앞에 출현하는 행위자는 반드시 문맥 속 화자인 수동자보다 상위자가 출현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와 같이 혈연관계에서 자기보다 손윗사람이 출현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25) 人之情性莫先于父母, 父母皆見愛而未必治也。(韓非子·五蠹)

사람의 정이 부모보다 앞서는 것은 없지만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도 꼭 교화되지는 않는다.

(26) 生孩六月, 慈父見背。(李密·陳情表)

제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27) 加少孤露, 母兄見驕。(文選·與山巨源絕交書)

게다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몸이 약하여 어머니와 형에게 응석받이가 되었습니다.

(28) 家叔以余貧苦, 遂見用于小邑。(陶潛·歸去來辭序)

숙부는 내가 가난하다는 연유로 소읍에 등용하였다.

위의 예문에서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는 각각 ‘父母’, ‘慈父’, ‘母兄’, ‘家叔’으로 모두 화자인 수동자와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 이때 수동자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서술하는 화자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보다 암시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행위자가 권력 관계에서 수동자보다 상위자가 출현하는 경우이다. 특히 고대 봉건사회 계급관계에서 가장 상위자인 군주가 출현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29) 明公以法見繩, 熹畏法而至。(晉書·李熹傳)

명공께서는 법으로써 재단하시니 제가 법이 두려워 다다른게 되었습니다.

(30) 惟昔李騫期, 寄在匈奴庭, 忠信反獲罪, 漢武不見明。(劉琨·扶風歌)

옛날 이릉이 돌아갈 기한을 놓쳐 흉노의 조정에서 의탁하였다. 충성과 신의(이릉)는 도리어 죄를 얻게 되고 한 무왕은 잘 살피지 못했다.

(31) 仲父獻誠言, 姜公乃見猜。(陶淵明·讀山海經十三首·第十三)

仲父는 진실한 말을 바쳤지만 강공에게 의심을 받았다.

(32) 君心見賞不見忘, 姊妹双飛入紫房。(王維·飛燕篇)

임금의 마음이 즐기고 잊지 못하는 바가 되어 자매가 모두 황후궁에 들어왔다.

위의 예문을 보면 ‘見’앞에 ‘明公’, ‘漢武’, ‘姜公’, ‘君’과 같이 군주가 출현한다. 그리고 수동자는 서술하는 화자가 출현하거나 혹은 3인칭 대명사가 출현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즉 ‘熹’, ‘李騫期’, ‘仲父’, ‘姊妹’와 같이 모두 군주보다 지위가 낮은 자가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朱家平(1998)는 남북조 사람에 의해 기록된 사서나 唐初인이 기록한 南北二史를 보면 황제가 조정에서 신하의 의견에 대한 간단한 의사를 표할 때 아

래 예문과 같이 ‘見從’, ‘不見從’, ‘見許’, ‘不見許’과 같은 어휘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들이 후에 ‘從之’, ‘不從’, ‘許之’, ‘不許’로 바뀌는 것을 보고 ‘見’이 1인칭 대명사뿐만 아니라 3인칭 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 (33) [蔡興宗]又陳原諸逋負, 解遣雜役, 并見從。(宋書·蔡廓傳)⁸⁾
 蔡興宗이 세금을 연체하는 자에게 잡역을 면하도록 청하니 받아들여졌다.
- (34) [殷景仁]乃称疾解職, 不見許, 使停家養病。(宋書·殷景仁傳)
 殷景仁이 병으로 사직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집에 머무르면서 병을 다스리도록 했다.
- (35) [蕭遙光]遙光請解督, 見許。(南齊書·宗室傳)
 蕭遙光이 감독을 사퇴하고자 하여 허락을 받았다.
- (36) 上自卽吉之后, 多所興造, [顏]竣諫爭懇絕, 上意甚不說, 多不見從。(南史·顏竣傳)
 왕이 즉위한 후 공사가 많았다. 안준이 간절히 건의하였으나, 왕이 심히 기뻐하지 않았고,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의 예문들은 앞에 출현한 문형과 달리 ‘見’앞에 행위자가 바로 출현하지 않는다. 朱家平(1998)은 이들이 행위자 주어가 생략된 능동문에 으로 보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동자로 보이는 성분이 문장 앞에 출현한다. 따라서 수동자가 주어가 되는 전형적인 피동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見’자체의 피동 의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앞에 출현하는 명사성 성분의 차이가 구문 의미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지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는 ‘見’앞에 명사성 성분이 자연물이나 불특정 대상이 출현한다.

- (37) 凡論事者違實, 不引效驗, 則雖甘義繁說, 衆不見信。(論衡·知實)

8) []안의 인명은 朱家平(1998)이 보충한 것이다.

무릇 일을 논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어 비록 달콤한 말과 여러 말이라도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 없다.

(38) 項籍播其宮室營宇，往者咸見發掘。(漢書·劉向傳)

항적이 궁실을 불태우고 간 자들이 여산의 묘를 뒤엎었다.

(39) 有獺得嘉魚，自謂天見矜。(劉禹錫·有獺吟)

해달이 곤들매기(가어)를 얻고는 스스로 하늘이 가엾게 여긴 것이라 말했다.

(40) 欲獻濟時策，此心誰見明?(李白·鄜中贈王大)

시책을 바쳐 구제하고자 하나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위의 예문에서 나오는 ‘衆’, ‘往者’, ‘天’은 모두 불특정한 대중이나 혹은 일종의 승배나 경외의 대상이 되는 자연물이다. 예문(40)같은 경우 불특정 대상인 ‘誰’가 출현하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군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동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유생명사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론적으로 ‘見’구문 앞에 행위자는 보통 수동자보다 상위자가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주로 혈연 혹은 권력 관계에서의 상위자인 특정 인물이 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자연물과 같은 경외의 대상도 출현한다. 때문에 이들 상위자에게 수동자가 의도하지 않게 여러 은택이나 재난을 받는 피동 의미가 강조된다. 또 이런 ‘A見V’구문은 비공식적 상황보다 공식적인 상황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올리는 서신이나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과 같은 문체적 배경에서 자주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손의미가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볼 때 위와 같은 문맥적, 문체적 환경이 ‘A見V’구문의 공손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4. 고대 중국어 피동표현과 공손의미의 상관관계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는 공손 혹은 공경을 표현하는 방법이 체계적이고 다

양하지 못하다. 한국어에는 경어법 혹은 대우법(honorification)이라고 부르는 형태적인 수단이 존재하여 대상을 높여 대우하고 화자의 공손한 태도를 드러낸다.⁹⁾ 반면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형태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로 어휘적 수단에 의해 공손을 표현한다. 특히 봉건적 위계질서가 엄격하던 고대 중국어는 奴才, 足下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칭과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을 사용하거나 명사나, 형용사, 동사 등에 공손을 표현하는 접두사를 붙여서 사용하였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중국에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어 표현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您, 貴, 拜’ 등과 같이 소수의 표현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대신 조동사, 부가 의문문, 동사 중첩, 소량 표시등의 여러 화용적 수단을 통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 밖에 가능, 허용, 추측, 또는 피동과 사동과 의미를 가진 구문 즉 통사적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고대 중국어에서 피동법은 일종의 공손을 표현할 수 있는 통사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고대 중국어에 성행하던 ‘于’, ‘爲’구문은 이들 어휘에 원래 피동의 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지만 ‘~에 의해 ~하게 되다’와 같은 상태변화를 나타내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피동 의미를 나타낸다. 姚振武(1999)는 선진시기 ‘于’구문, ‘爲’구문을 일종의 수동자 주어문으로 보고 완벽한 피동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단지 의미상의 피동표현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간접적이고 모호한 수단을 사용하다가 양한 시기에는 ‘만나다’, ‘당하다’ 의미를 갖는 ‘見V’가 생겨나 ‘爲A所V’구문과 함께 발전하였다. 후에 ‘見V’가 다시 보다 직접적인 피동을 의미하는 ‘被V’에 의해 대체되었고 행위자가 출현하는 ‘被AV’형식이 생겨나 ‘爲A所V’구조보다 우위를 점하다가 결국 수당시기에 이르러 주요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¹⁰⁾ 중국어 피동법이 이처럼 완곡하고

9) 한국어에서 경어법 혹은 대우법은윗사람에게 예의를 표시하는 일종의 문법 범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체 높임말의 선어말 어미 ‘-시-’, ‘-께서’, 객체 높임의 ‘-께’, 청자 높임의 종결어미 ‘-어요’, ‘-습니다-’ 등이 사용된다.(이정복 2012) 이외에 일반적으로 화용론에서 말하는 공손법은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대화 격률의 하나로 손윗사람 뿐만 아니라 손아랫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경어법 혹은 대우법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다.

10) 魏培泉 (1994)참조

우회적인 피동표현을 사용하다가 좀 더 명료하고 강한 피동표현을 쓰는 것은 언어 발전의 엄밀화 추세와 부합된다.

반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피동표현은 직접적이고 명료한 피동표현보다 더 공손함을 드러낼 수 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見’은 ‘爲A所V’구문과의 결합하여 행위자가 출현하는 ‘爲A所見V’구조의 새로운 피동문을 구성하였다. 이때 ‘爲’구문의 작용은 누군가에 의해 ‘-게 되어서’ 즉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 것을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수동자의 주체성을 약화시켜 피동자로 만듦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적게 나타냄으로써 공손성이 드러난다.¹¹⁾ 이때 행위자는 주로 일인칭 화자인 수동자보다 사회적 관계에서 상위자가 출현하는 조건을 가진다. 이런 ‘-게 되다’ 피동표현의 또 다른 작용으로 서술어가 표시하는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거리감을 만들 수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 ‘-게 되다’와 피동사가 포함된 ‘-어 보이다’, ‘-다고 보이다’와 같은 피동표현이 공손표지로 많이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¹²⁾ 김서형(2014)은 한국어 ‘-게 되다’는 ‘변화, 피동, 공손’의 세 가지 의미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게 되다’는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것에 의해 일어난 변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주어와 피동자가 되어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 화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타율적으로 가해졌다고 봄으로써 더 공손함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때 주어 자신의 의지나 책임이 아님을 표현하여 상대의 체면 손상 위협 정도를 낮추는 소극적 공손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11) 이밖에 이해영(1996)과 이현진(2001)은 피동문은 부담스러운 담화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화자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거나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 즉 대인관계의 유지나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고 보았다.

12) 한국어는 ‘-이, -히, -리, -기’와 같은 접미사를 이용한 형태적 피동이외에 ‘-어 지다’와 같은 통사적 피동, 그리고 ‘당하다’, ‘받다’, ‘-되다’등에 의한 어휘적 피동도 존재한다.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어지다’, ‘-되다’구문이나 ‘받다’, ‘당하다’와 같은 피동성 어휘를 피동의 범주에 넣어야 할지 여전히 논의 중이다.

- (41) 가. 이번엔 제가 가게 되었어요.
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일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회적 피동표현이 공손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피동표현이 가진 화자의 비초점화(defocalization) 혹은 거리 만들기와 관련이 있다. 김선희(1996)는 화자 중심의 상황지시에서 거리감이 생길수록 상황에 대한 언급이 청자 지향적으로 이동하여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발화상의 화자의 언급점(point of reference in speaking) 또는 자기중심적 지시(egocentric reference)는 화자의 관점을 현시적(pronominantly)으로 나타내려는 의도를 보임에 비해 공손의미는 화자의 관점을 암시적(silent)으로 나타내어 비초점화시킨다고 보았다. 이처럼 화자의 언급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데 이를 공손을 위한 거리 만들기로 설명하며 대표적인 문법적 수단으로 가정법과 피동화를 들고 있다.

한편 고대 중국어에서 공손표현을 나타내는 ‘A見V’구문의 특수한 점은 화자의 비초점화와 더불어 공손 대상의 초점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공손의미를 내포하는 ‘A見V’구문은 행위의 주체인 상위자 예를 들어 군주나 부모 등을 앞에 노출시켜 초점화시키고 수동자인 화자는 문맥 속에 드러날 뿐 현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초점화된다. ‘A見V’구문에서 수동자는 대부분 일인칭이거나 혹은 행위자보다는 하위자가 나타나고 더욱이 문맥에서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피동행위의 작용이 상위자에 의한 행위임을 강조하고 하위자인 자신을 낮추고 상위자인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공손성이 실현된다. 이는 ‘R見V’과 같이 수동자가 드러나고 행위자가 출현하지 않는 피동문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呂叔湘(1943)이 앞서 ‘見’을 생략된 일인칭 대명사가 간주한 것은 수동자의 비초점화, 즉 스스로를 낮춰 공손을 드러내는 점과 관련 있고, 姚振武(1988)가 ‘보이다, 드러내다’로 ‘見’을 해석한 것은 행위자를 강조하고 초점화시키는 점과 연관된다. 피동표현에 의한 비초점화 혹은 거리 만들기는 화자와 청자가 신분이나 지위 연령 등의 힘이 대등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화자인 자신을 낮추고 행

위자인 상대방을 드러내는 두 가지 효과를 통해 ‘A見V’구문의 공손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5. 나오는 말

일찍이 많은 학자들이 행위자 주어가 출현하는 ‘A見V’구문에서 ‘見’에 대해 주로 일인칭 대명사로 보거나 혹은 ‘보이다’ 혹은 공손의미를 갖는 부사 혹은 동사로 보는 등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이들 주장에 반대하고 행위자 주어가 앞에 출현하는 ‘A見V’구문의 공손 의미의 생성 과정과 문맥적 환경을 분석하여 ‘見’자체의 어휘의미 변화 때문이 아니라 ‘見’구문이 가진 문맥적 환경에 의해 공손의미가 도출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피동표지 ‘見’은 ‘爲A所V’구문과의 연계를 통해 행위자가 앞에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爲’는 술어성 동사가 되어 일종의 수사 주어문이 되며 ‘爲…所’가 사라진 ‘A見V’구문은 자체적으로 여전히 명사성 구조를 띠며 목적어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행위자 주어 뒤에 쓰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見V’가 점차 서술성 성분이 되어 하나의 동사로 기능하여 뒤에 다시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런 경우 ‘見’은 이미 허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見V’구문이 출현하는 문맥을 살펴보면 앞에 출현하는 행위자는 반드시 수동자보다 상위자가 출현한다. 대부분 혈연이나 권력 관계에서 상위자인 부모나 군주와 같은 인물이 출현하는 경우가 많고, 생략된 수동자는 상위자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이 출현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암묵적 화자인 1인칭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서신이나 상소문과 같은 문체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점이 ‘A見V’구문이 공손성을 드러내게 되는 조건이다.

고대 중국어 피동표현이 공손의미를 나타내는 이유는 화자의 비초점화와 관련이 있다. 상고 중국어 시기 피동표현은 ‘于’, ‘爲’구문과 같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행위가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이행된 것으로 화자의 주체성을 약화시켜 수동성을 강조하여 공손성은 강화시킨다. 즉 공손표현은 명제를 표현하는 화자의 관점을 약화시키고 비초점화시킴으로써 만들어진다. 다만 행위자 주어가 앞에 나타나는 'A見V' 구문에서는 화자의 비초점화 뿐만 아니라 행위자인 상위자가 앞에 출현하여 행위를 강조해서 드러내는 초점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화자인 하위자의 비초점화와 행위자인 상위자의 초점화를 통해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공손 책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參考文獻

- 김선희(1996) 공손법의 원리와 실제 목원대학교 논문집 제29집
- 김서형(2014) ‘-게 되다’의 의미 기능과 한국어 교육 Journal of Korean Culture 27
- 이정복(2012) 한국어 경어법의 기능과 사용 원리 소통
- 이혜영(1996) 현대 한국어 활용어미의 의미와 부담 줄이기의 상관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진(2001) 한국어 피동표현의 교수내용 및 방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白兆麟(1998) 從漢語史角度論“見V”之“見” 安徽大學學報 第5期
- 方有國(1992) 古漢語“爲”字被動句結構考辨 重慶師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期
- 李潤(1995) 試論實詞虛化与句法結構的關係—從“見”字的演變談起 四川師範學院學報 第4期
- 吳金華(1983) 試論R爲A所見V式 中國語文 第3期
- 劉瑞明(1994) 從泛義動詞討論“見”字本不表示被動兼及被動句有關問題 湖北大學學報
- 龍國富(2014) 試論漢語“爲”字被動式的構式語法化 古漢語研究 第3期
- 陸美善(1998) 淺談古漢語“見V”結構的修辭功能 右江民族師專學報 第3期
- 呂叔湘(1943/1984) 見字之指代作用, 漢語語法論文集 商務印書館
- 馬建忠(1983[2004]) 馬氏文通 商務印書館
- 彭小琴·俞理明(2006) “A見Vt”構中的“見” 古漢語研究 第2期
- 唐玉明(1985) 論先秦漢語被動式的發展 中國語文 第4期
- 唐玉明(1987) 漢魏六朝被A式略論 中國語文 第3期
- 楊伯峻, 何樂士(1992)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 姚振武(1988) 古漢語“見V”結構的再研究 中國語文 第2期
- 姚振武(1999) 先秦漢語受事主語句系統 中國語文 第1期

- 魏培泉(1994) 古漢語被動其的發展与演變机制 中國境內語言暨語言學 2
張錦笙(1994) 中古世說新語“ A(R)見V”句式試析 古漢語研究 第4期
朱家平(1998) 助詞“見”指代第三人称賓語的用法具有普遍性 北京教育學院 第4期
朱慶之(2013) “R爲A所見V”被動句式的厘定—兼談李密《陳情表》之“所見明知”
古漢語研究 第4期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passive voice and the function of showing respect in ancient chinese
- Focusing on A见V sentence

Park, Hyang-lan

In ancient Chinese Jian(见) in the construction ‘Jian(见)+V’ can be used in passive sentences and active sentences. In active sentences the nature and the function of Jian(见) in ‘Jian(见)+V’ has always been controversial. Some scholars consider it a demonstrative pronoun, and some consider it a verb or an adverb showing respect. This paper is opposed to those two opinions. In Middle Chinese Jian(见) in active sentences seems to be able to show respect, it is a result caused by the change of the syntactic environment, rather than the semantic change of Jian(见). Through describing the syntactic and semantic change of the passive marker Jian(见), this paper analyses the syntactic and semantic conditions and mechanisms about the reason of showing respect, and explor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ssive voice and the function of showing respect.

Key words : Jian(见) sentence, passive voice, the function of showing respect

투 고 일 : 2015. 9. 10. / 심 사 일 : 2015. 9. 15.~ 2015. 10. 15. / 게재확정일 : 2015. 10. 16.